

사용시 주의사항

가. 일반적 주의

- (1) 렌즈를 다루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다. 눈 또는 렌즈에 화장품, 로션, 비누, 크림, 탈취제 또는 스프레이가 닿으면 안된다. 화장을 하기 전에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오일 베이스 화장품 보다 워터 베이스 화장품이 렌즈에 손상을 덜 준다.
- (2) 렌즈를 만지기 전에 손가락 또는 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렌즈의 미세한 흠집은 시력 저하나 눈의 상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
- (3) 취급, 삽입, 제거 및 착용 지침을 주의하여 따른다.
- (4) 눈 전문가가 권장한 기간이 지난 렌즈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 (5) 항상 렌즈를 조심히 다루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6) 착용자는 의사들에게 렌즈 착용자임을 알려줘야 한다.
- (7) 렌즈를 용기에서 꺼낼 때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핀셋 또는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대신 렌즈를 손바닥에 떨어뜨려 사용한다.
- (8) 렌즈를 손톱으로 잡아서는 안된다.
- (9) 눈 전문가가 권장한 착용 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항상 렌즈를 폐기하도록 한다.
- (10) 눈과 관련된 약을 복용할 때에는 항상 눈 전문가와 상의 후에 복용하도록 한다.
- (11) 착용자는 항상 그들의 고용주에게 렌즈 착용자임을 알려줘야 한다.
- (12) 추가 방문 시에 환자의 눈이 지속적으로 건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환자는 추가 방문 스케줄을 지켜야 한다.
- (13) 콘택트렌즈는 전용 보존액에 보관할 것
- (14) 소독, 세척, 헹굼 혹은 윤활제 사용은 재질에 맞는 용품을 사용할 것
- (15) 세척액, 보존액, 생리식염수 등은 반드시 전문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수돗물이나 기타 사제 불량품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것
- (16)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나. 적용상의 주의

- (1) 렌즈가 눈에 달라붙은 경우(움직이지 않음), 사용지침에서 권장된 방법에 따른다. 눈의 건강을 위하여 렌즈는 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렌즈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 경우, 환자는 즉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 (2) 스포츠 활동이나 수중 활동 시 착용에 대해서는 눈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 (3) 렌즈표면이 건조해져 시력이 불안정한 경우, 인공누액으로 눈물을 보충해주고 눈을 깜박여 주면 정상시력을 얻을 수 있음
- (4) 과로, 수면부족, 장시간 독서 등으로 눈이 피로한 경우 잠시 착용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

다. 금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렌즈의 착용을 중지해야 한다.

- (1) 안전방부의 급성 또는 아급성 염증
- (2) 각막, 결막 또는 안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눈의 질환, 상해 또는 비정상적 상태가 있을 경우
- (3) 심각한 눈물분비저하(건성안)

- (4) 각막의 예민성이 감소된 경우
- (5)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전신성 질환이 있는 경우
- (6) 각막 염증(세균성, 진균성 또는 바이러스성)이 있는 경우
- (7)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렌즈관리용액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눈 표면 또는 눈 부속기관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8) 눈의 충혈 또는 자극감이 있을 경우
- (9) 수은 또는 티메로살(thimerosal)과 같은 렌즈관리용액의 성분 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라. 경고

착용자는 콘택트렌즈의 착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야 한다.

- (1) 콘택트렌즈 및 렌즈관리용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시력 손상, 각막궤양과 같은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렌즈 착용자는 안과전문의의 지침을 따르고 렌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2) 렌즈보관용기의 세척, 착용제한, 착용스케줄, 사후관리 스케줄 등의 관리조치에 따르는 요구는 착용자에게 강조되어야만 한다.
- (3) 연구 결과 비흡연자 보다 흡연자에게서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다.

연속착용

- (1) 미생물에 의한 각막염에 대한 위험 정도는 연속착용렌즈 사용자가 매일착용렌즈 사용자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의 원인 때문이라고 한다.

- 각막의 감염저항성 약화
-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저산소증
- 박테리아나 세균의 번식이 잘되는 눈의 환경
- 부적절한 렌즈 소독 또는 세척
- 렌즈 관리 용품의 오염
- 개인위생 관리의 부주의
- 적합하지 않은 렌즈 착용 및 착용 스케줄의 관리
- 렌즈에 이물질의 축적
- 렌즈의 손상
- 적합하지 않은 착용
- 착용시간
- 안구의 잔해 또는 환경의 오염

많은 환자가 성공적으로 연속착용렌즈를 착용하는 반면에, 연속착용은 상피 미세낭, 침윤의 발생률 및 정도가 높고 상피 세포변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어, 이 경우 연속착용의 중단 또는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상피의 상태는 연속착용을 중단하면 회복될 수 있다.

- (2) 만약 착용자가 눈의 이물감, 과도한 눈물, 시력 저하, 충혈 등을 경험했다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

마. 부작용

착용자는 다음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 (1) 눈이 찌르는 듯한 느낌, 작열감, 가려움증, (자극감) 또는 기타 눈의 통증
- (2) 처음 렌즈를 착용했을 때의 느낌보다 편안한 정도가 덜 할 때
- (3) 눈의 이물감(이물질, 긁힌 부위)
- (4) 과도한 눈물
- (5) 눈의 과도한 분비물
- (6) 충혈
- (7) 시력 저하
- (8) 시야흐림, 물체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거나 무리 지어 보이는 현상
- (9) 빛에 과민해짐(눈부심)
- (10) 건성안

상기와 같은 증상이 보일 때에는 하기의 지침을 따른다.

- (1) 즉시 렌즈를 제거한다.
 - (2) 불편감 또는 문제점이 해소되었을 경우 렌즈를 자세히 살펴본다. 렌즈에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손상된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며, 렌즈를 보관용기에 놓고 전문의와 상의한다. 렌즈에 먼지, 속눈썹, 이물질이 묻거나, 혹은 상기 증상이 중단되고 렌즈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렌즈를 철저히 세척, 린스, 소독한 후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 렌즈를 다시 착용한 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전문가와 상의한다.
- 렌즈를 제거한 후 또는 새로운 렌즈를 재 삽입한 후에도 상기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즉시 렌즈를 제거한 후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감염, 각막 궤양, 각막 혈관 신생, 홍채염등이 발병하여 병이 급진할 가능성이 있다. 염증, 각막 상피, **stinging** 또는 박테리아성 결막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치료하여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다.